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n Buddhism

1주차

불교의 중국 전래와 동아시아

김영진 교수



dongguk
UNIVERSITY



K학술확산연구소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n Buddhism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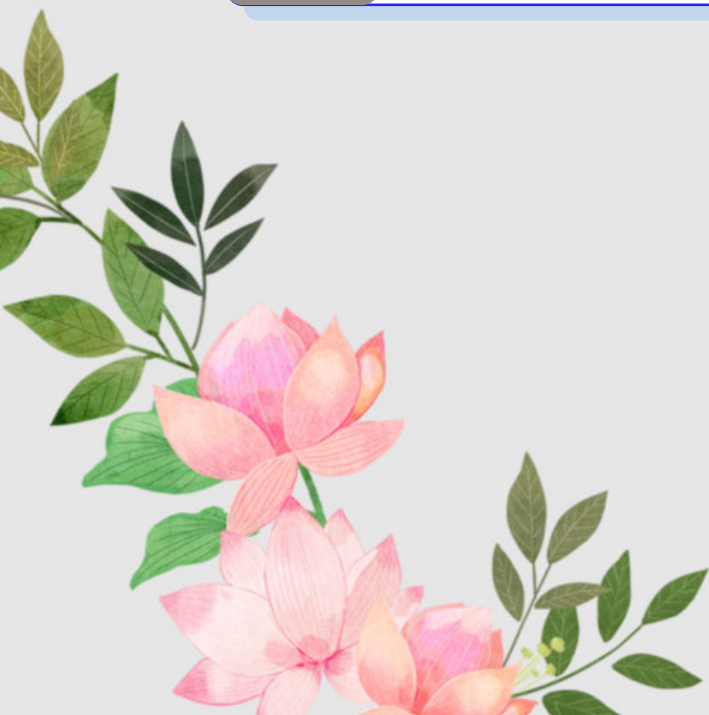
I	학습안내	3
---	------------	---

II	강 의	5
----	-----------	---

- 1-1 중국 불교의 정의와 성격
- 1-2 불교 전래의 전설과 감몽구법설
- 1-3 전한 애제 연간 이존구수설
- 1-4 불교 전래의 경로와 구법승
- 1-5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III	퀴 즈	25
-----	-----------	----

IV	참고문헌	27
----	------------	----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n Buddhism

I. 학습안내

1

강의개요

중국불교의 중요한 사상과 인물 등을 통사적으로 이해하면서 그것이 한국불교와 주고받은 영향을 살피면서 동아시아불교의 전체적 흐름과 특징을 강의 한다.

2

학습목표

본 강좌는 중국불교의 전체 흐름을 따라가며 중국불교의 중요한 사건, 사상, 인물, 신앙 등을 파악하고, 아울러 중국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과 두 지역의 불교 교류를 파악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고대 동아시아불교의 전개와 발전에 대한 정보를 확대할 뿐만아니라 현대 동아시아 국가의 종교 문화 상의 교차점을 포착하고 연대의 가능성을 제고한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Korean Buddhism

3

주차별 강의주제

1주차	불교의 중국 전래와 동아시아
2주차	불교의 중국화-도교와 유교
3주차	불전 한역과 한자문화권
4주차	학파불교와 고구려·백제·신라
5주차	법상종·화엄종과 통일신라
6주차	선종의 전개와 한반도 전래
7주차	송·요와 고려의 불서 교류
8주차	명·청 불교와 조선 불교
9주차	근대 중국의 불교 사상가
10주차	동아시아 근대불교학의 성립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II. 강의

1-1

중국 불교의 정의와 성격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진이라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불교학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중국불교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 불교 텍스트 등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중국불교의 정의와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학습 개요와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분류법. 그리고 두 번째, 중국불교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 문명 교류와 중국불교의 성격. 이것이 학습 개요이고요.

전체적인 학습 목표는 불교의 분류법을 통해서 중국불교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불교의 정의를 내려 학습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국불교는 문명 교류의 결과이고, 그것으로 중국불교의 성격이 특징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분류법

전체적인 불교의 역사는 2600년 정도 됩니다. 대단히 오래된 종교이고 사상이고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상당히 다르게 발전해 왔고, 오랫동안 발전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해, 이론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해할 때 한 번에 어떻게 이해한다는 건 대단히 힘들고요. 그래서 불교를 이해하는 방식은 결국 불교를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해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분류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지역에 따른 불교 분류, 교류에 따른 불교 분류, 그리고 시대에 따른 구분, 신앙 혹은 불전, 불교 텍스트가 어떤 언어로 쓰였는지에 따른 분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자면, 지역에 따른 불교 분류입니다. 지역에 따른 불교 분류가 불교의 분류 중에서 가장 편한, 아주 단순한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불교 같으면 한국불교, 일본불교 같으면 일본불교. 이런 식으로 현재 국가의 명칭에 따른, 지역에 따른 불교 분류죠. 크게 불교 역사에서 보자면 인도불교, 중국불교, 한국불교, 일본불교, 동남아 불교. 동남아라는 표현은 국가명은 아니죠.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남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가 있죠. 동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 몽골 불교. 이런 것도 지역 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민족 개념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민족에 따른 불교 분류라고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우리가 불교 학계에서 그것을 지역에 따른 불교 분류로 이야기합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그리고 교리에 따른 불교 분류는,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다소 접근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리를 이해해야 그 불교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교리에 따른 불교 분류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중관학, 유식학, 밀교, 천태학, 화엄학 등입니다. 이건 실제로 불교를 기본적으로 학습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 학자들이 주로 나누는 불교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에 따른 불교 구분, 불교 분류법인데요. 시대에 따른 것도 사실 지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시대라는 게 어떤 지역의 시대이지, 전체 분류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긴 힘들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 인도불교의 역사에서는 초기불교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흔히 우리가 고대의 불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불교 같은 건 고대의 불교라고 할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불교에는 근대 불교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최근 수십 년 전 불교는 현대 불교라는 말도 가능하죠.

지역 안에, 지역을 한정된 시대에 따른 구분을 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불교, 신라, 통일신라 불교.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불교, 근대, 일제시대 불교. 그리고 해방 이후 불교, 이렇게 나누는 건 시대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다룰 중국불교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 때, 한대불교. 그리고 위진시대 불교, 수나라 때 불교, 당나라 때 불교,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심지어는 대륙, 중국 공산화 이후에 공산화된 중국의 불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따른 분류 구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신앙이라는 것에 한정해서, 전체 불교가 아니라 신앙에 한정해서 불교를 분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불교 내에서 여러 가지 신앙 형태들이 있는데 관음신앙, 미타신앙, 사리신앙, 문수신앙 등입니다.

그래서 불전 언어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굳이 불전 언어를 구분하자면 팔리어불교 ‘계’ 입니다. ‘계’ 는 계열, 어느 지역을 포함해서 어떤 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리어불교계는 지금 스리랑카나 미얀마 등 동남아 지역에서 팔리어로 된 불교 텍스트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팔리어불교계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고대 중국인들이 한문으로 불교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인, 그리고 중국 민족만 한문 불교 텍스트를 사용한 게 아니라 주변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 흔히 한국불교라고 하는 한반도의 불교, 한국불교, 그리고 일본불교,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은 적어도 불교의 입장으로 보자면 동남아가 아니고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속합니다. 한문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베트남은 한문불교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문불교계는 지금으로 보자면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도 한문불교 텍스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인 티베트어불교계입니다. 흔히 티베트불교를 신봉하는 민족,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서 티베트어로 된 불전을 읽고 있습니다. 티베트불교는 사실 인도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티베트로 불교가 들어갈 때 티베트인들은 불교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티베트어 문자, 티베트어를 연구하고 새롭게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티베트 불전이 번역되고, 번역되면서 지금의 티베트어, 문장, 글씨나 문법이 확장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티베트 지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역, 그리고 몽골, 만주. 이 지역에서 티베트불교를 신봉하고 티베트불전을 사용합니다.

중국불교란?

그리고 중국불교는 조금 전에 봤던 분류법으로 하자면 지역 분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역 분류의 난점도 있죠. 일단 먼저 중국 불교가 무엇인가. 아니면 중국 불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정의를 내려 본 겁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중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서 전개된 총체적 양상이 중국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양상 안에는 사상과 사건, 인물, 문화, 역사, 교리 등이 포함됩니다. 대단히 다양하죠. 이 다양함을 중국불교라는 표현으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중국불교에서 중국이란?

이 중국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중국을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을 가지고서 중국불교의 중국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중국의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죠.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영토에 속한 불교, 민족, 문화를 모두 중국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불교라고 하면 현재 중국에서는 영토에 속했던 몽골, 만주, 그리고 타클라마칸 지역의 서역 지역. 그리고 베트남과 인근한 운남성 지역의 남방 쪽 불교 등을 다 포함해서 중국불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서방에서 중국불교라고 할 때는 그렇게 확대하지 않습니다. 주로 한문 텍스트로 이루어진 중국 전통불교에 한정시킵니다.

그래서 굳이 중국불교라고 했을 때 중국이라는 말을 한정적으로 정의하자면 한족 중심으로 발전해 온 중국 왕조라고 간주하고 그 왕조, 그 지역에서 논의되었던, 발전했던 한문 불교, 한문 텍스트를 주로 하는 불교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학계가 말하는 중국불교의 3가지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3가지 갈래는 중국을 벗어나면 그다지 잘 유통되는 건 아닙니다. 이 3가지 전통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에 어떤 불교가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전불교입니다. 한전이라고 할 때 한전의 '한'은 중국 한족의 의미도 있지만 한문 텍스트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불전을 주로 하는 불교전통을 한전불교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한족불교죠, 한족불교. 한족, 중국 고대 민족인 한족이 한문 텍스트를 가지고 운용했던 불교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불교입니다. 장전불교에서 '장'자는 티베트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는 티베트를 서장이라고 부르죠. 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티베트 쪽을 장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티베트어로 된 불교, 아니면 티베트인의 불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티베트불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교라고 하죠. 티베트불교고요.

그다음 남전불교라고 할 때 남전은 동남아 아니면 남방 상좌부계통의 불교입니다. 흔히 초기 불교라고 얘기하면서 대승불교 이전의 불교전통을 상좌부불교 전통이라고 하고 남방불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전불교는 스리랑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발전해 온 상좌부계통 불교전통을 얘기합니다.

이 전통이 중국의 남쪽 운남성 쪽에 전해지고, 그 전통이 그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전불교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문명교류와 중국불교의 성격

불교의 성격, 중국불교는 대단히 거대합니다. 중국불교는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서구의 기독교, 신약을 사용하는 기독교의 2000년 전통하고 맞먹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불교의 전통은 길죠. 2000년의 역사를 가집니다. 중국불교는 중국 태생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출현한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래서 중국불교는 기본적으로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는 문명 교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국불교의 한 성격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불교 수용과 발전은 세계 문명사의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문명과 중국 문명이라는 이질적인 문명 단위가 불교를 매개로 조우하는 거죠. 불교 전래는 종교, 철학, 문학, 미술, 건축, 음악, 복식, 음식 등 포괄적인 문명의 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서 중국인은 완전히 새로운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교의 윤회나 정토세계 등의 관념은 중국인의 내세 관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과응보. 불교에서 나온 인과응보 관념은 중국인에게 새로운 윤리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보면 규정하고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관념이죠.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벌레나 지렁이 같은 걸 밟지 말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벌 받는다고요. 그건 국가가 나서 가지고,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건 아니죠. 그거 밟았다고 잡아가지는 않지만, 어머니는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천신이나, 중국 고대의 천신 과녁 같은 게 벌을 내리는 게 아니고 인과응보에 의해서 ‘네가 그런 나쁜 짓을 하면 호되게 당한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죠.

이제 오늘 이 차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중국불교는 인도문명과 중국문명이 조우하고 충돌한 문명사적 사건이며, 또한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관이 동아시아에 잉태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1-2

불교 전래의 전설과 감몽구법설

이번 차시는 중국불교의 불교 전래의 전설과 감몽구법설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교 전래의 전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후한 명제의 감몽과 금인, 그리고 중국 최초 사원인 백마사. 그리고 중국 최초 번역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십이장경’입니다.

학습목표는 불교 전래의 여러 전설을 간략히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전래 전설인 후한 명제의 감몽설과 금인에 대해 이해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한 명제 감몽설과 관련하여 중국 최초의 사원으로 일컬어지는 백마사 건립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최초 번역 경전이라고 알려진 ‘사십이장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 전래의 다양한 전설

고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를 사실 정확하게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교 전래가 특정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헌에 다양한 불교 전래,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도 있고 설화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해경’의 저자인 백익이 불교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산해경’은 고대 중국의 요즈음 식의 인문지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갖가지 진귀한 풍습, 인물 등을 소개하고 있죠. 이 얘기를 한 분은 중국 남북조시대 송나라의 종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자신의 저서 ‘명불론’이라는 글에서 중국 고대의 문헌 ‘산해경’에서 이미 불교의 자비를 말했다고 주장합니다.

종병은 당시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요. 명불론은 불교를 세상에 밝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불교의 내용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불교가 오래 전에 중국에 이미 전래되었다고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불교 전래 고려해서 두 번째 전설, 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자가 석가, 부처를 알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 승려인 도선이 쓴 ‘광홍명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나라 때 ‘홍명집’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걸 당나라 때 확대해 가지고 쓴 책이 ‘광홍명집’입니다. 이 글에 공자가 ‘서방에 성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공자가 붓다가 위대한 성인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는 공자가 서방에 누가 있다는 말을 서방, 인도에 붓다라는 성자가 존재했음을 벌써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이해한 거죠. 그리고 진나라 시황제, 흔히 진시황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황제 시절에 불교가 전래됐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수나라 비장방이라는 인물이 쓴 ‘역대삼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시황제 시절의 승려인 석리방이 불경을 중국에 가져왔는데, 시황제가 이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를 금지했다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황제 시절, 진나라 때 불교가 이미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이 3가지 이야기를 지금 불교 학계에서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 텍스트가 불교계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오래 전부터 중국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대단히 친근한 종교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래 전에 이미 있었다는 식으로 중국불교의 전래를 이야기합니다.

후한 명제의 감몽과 금인

그리고 중요한 불교 전래설 중 하나입니다. 후한 명제의 감몽과 금인입니다. 진대에 나온 ‘후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후한 명제 때 임금이 꿈속에서 금인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감몽이라는 말도 사실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금인을 만났다는 이야기에서 금은 쇠로 된 사람이 아니라 금빛 사람입니다.

후한 명제가 꿈속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사람을 만나고서,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 신하들과 만났을 때 신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하니까, 신하들이 천축에 가면 그런 황금빛 사람을 신봉하는 종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한 이야기는 ‘서방에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부처라고 합니다. 폐하께서 꿈에서 본 것은 부처가 아닐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한 명제는 신하 가운데 채음, 주경, 왕준 같은 이를 뽑아서 천축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천축으로 사신으로 가는 길에 천축,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던 승려인 가섭마등과 축법란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천축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천축에서 중국으로 오는 분을 만난 거죠. 이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일찍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벌써 인도에서 불교가 지속적으로 중국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최초 사원 백마사

중국 최초의 사원인 백마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서’ 석로지에 따르면 후한 명제 때 낙양성 옹관 서쪽에 백마사를 건립했다고 합니다. ‘위서’는 우리가 위, 촉, 오 3국을 얘기할 때 위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석로지는 위서의 한 편명인데요. ‘노’, 이때는 노자, 도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석로지’, 노자를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자, 도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불교도 당시에는 불교가 특정한 종교로 구분되지 않은 시점에서 ‘석로지’에는 불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로지에서 낙양성 서쪽에 백마사를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낙양가람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현이라는 분이 썼는데, 낙양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오래 된 도시죠.

낙양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보았던 불교 가람. 이때 가람은 불교 사찰을 얘기함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니다. 가람을 보고 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양의 가람에 관련된, 사원에 관련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낙양가람기’에는 백마가 경전과 불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백마사라고 칭한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최초의 사원이 백마사라고 하는데, 왜 백마사냐면 인도에서 불교가 들어올 때 인도의 승려들이 하얀 말, 백마에 경전과 불상을 싣고 왔기 때문에 그 경전과 불상을 모신 사원을 백마사라고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승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승전’은 역대 고승, 스님들 중에서 여러 분야에서 대단히 뛰어난 분을 고승이라고 합니다. 중국 불교사에서는 일찍이 이런 스님들, 일종의 인물평전이죠. 이 스님들, 고승을 뽑아서 이렇게 책으로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게 고승전입니다.

고승전은 인물만 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인물의 행적. 그 분들이 책을 번역했으면, 불경을 번역했으면 번역한 경전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불교 역경 내지 불교사에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승전’ (혜교)에서는 고대 외국의 어느 왕이 사원을 파괴하자, 백마가 밤에 나타나 슬피 울었고 이 때문에 국왕이 사원의 파괴를 멈추었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백마가 슬피 울어서 사원 파괴를 막았기 때문에 그 사원을 백마사라고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위서’ 석로지에 나오는 이야기와 많이 다른 겁니다. 또 한 이야기는 백마사가 절이 아니라 일종의 여관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때 ‘사’가 절이라는 게 아니라 일종의 숙소라는 의미인 거죠.

고대에 홍여시라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시’가 ‘절 사’자가 아니라 ‘관청 시’로 있는 거죠. 한자 ‘사’자가 ‘절 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는 ‘관청 시’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백마사라고 했을 때 ‘사’가 절이 아니라 그냥 관청 내지, 요즘 식으로 하면 호텔 같은 거였다. 일종의 영빈관이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이게 백마사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불교 학계에서는 현재의 백마사가 과연 고대의 백마사였는지 확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백마사가 중국 최초의 사찰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최초의 사원이었을까도 확정하지 못합니다.

중국 최초 번역 경전 ‘사십이장경’

그리고 중국 최초의 번역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십이장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십이장경’은 42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십이장경’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상, 무아, 고 등 초기불교의 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사십이장경은 다양한 경전을 초록한 형태입니다. 초록이라는 말은 이것저것 뽑아놓았다는 거죠. 초록했다는 얘기입니다.

4세기 활동한 역경가인 승가제바가 번역한 중아함경이나 5세기에 활동한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잡아함경 등 수많은 경전을 초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십이장경이 실제로 한 텍스트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를 한문으로 번역한 번역경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죠. 일종의 편집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경전이라고 하면 결코 최초의 경전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번역의 경전을 인용한 것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번역한 번역 경전을 인용한 것으로 봤을 때 적어도 현존하는 사십이장경은 번역서가 아니라 후대의 중국인이 편집한 편집경전으로 보입니다.

이게 현존 사십이장경의 이미지이고요. 불교의 중국 전래 전설에는 중국불교인의 다양한 의도와 각색이 있었고, 불교가 중국에 정착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1-3

전한 애제 연간 이존구수설

이번 차시는 전한 애제 연간 이존구수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습개요는 이존구수설의 의미, 어환의 ‘위략’ 서용전, 초왕 영의 불교신앙, 후한 환제의 불교신앙입니다.

그리고 학습목표는 가장 신뢰성 있는 불교 전래설인 이존구수설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존구수설이 등장하는 어환의 ‘위략’ 서용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불교 신앙의 사례로 후한의 초왕 영의 불교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불교 초창기 불교 신앙의 또 한 사례로써 후한 환제의 불교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존구수설의 의미

첫 번째, 이존구수설의 의미입니다. 불교 중국 전래 학설 가운데, 전설 가운데 비교적 신빙성 있는 가설은 불교구수설입니다. 구수설이라는 말은 입으로 ‘수’,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교를 입으로 전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불경이나 불상 등 구체적인 물질성 있는 불교 관련 물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어디, 어디에 있다더라.’ ‘불교의 내용은 이렇다더라’ 라고 말로 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구수설이라고 합니다.

전한 애제 원수원년, 기원전 2년에 박사제자인 진경현이 대월지국의 사신 이존으로부터 불경을 전해 받았습니다. 박사제자라는 말은 한나라 때 당시 일종의 국가가 설립한 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박사라 함은 당시 지식인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진경현은 그런 정도의 지식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월지국은 얘기하자면, 월지라는 민족은 원래 몽고 지역에 있다가 흉노족의 공격 때문에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의 서역,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는 인도 북부에 침입해서 유명한 쿠산 왕조를 세우기도 했던 민족입니다.

어환의 ‘위략’ 서용전

이존구수설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어환의 ‘위략’ 서용전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시대 유송의 학자인 배송지가 진대의 학자 진주가 쓴 ‘삼국지’ 위지에 주석을 답니다. 그러니까 진대에 진수가 먼저 ‘삼국지’를 쓰고, 거기에 나오는 위, 촉, 오 세 나라 가운데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위지에 대해서 남북조시대의 유송의 학자인 배송지가 해설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배송지는 주석에서 위대 인물인 어환이라는 분이 쓴 ‘위략’ 서용전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실제 ‘위략’ 서용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인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용된 서용전에서는 전한 애제 원수 원년, 기원전 2년 대월지왕의 사자인 이존이 부도교에 대해 말로 전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로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부도교라는 표현은 불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교를 그냥 부디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는 불교, 붓다. 부처를 얘기하는 붓다가 붓다, 붓도 등 다양하게 발음되었습니다. 근대식으로 서양에서 불교, 부디즘이라는 말이 정착되기 전에 붓톨로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 부톨로지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부도’라는 말은 고대의 불타라는 발음을 한자로 옮겨놓은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부도교를 다시 보겠습니다. 부도교의 부도는 붓다의 월지 발음으로 보이고요. 이걸 한자로 ‘부도’라고 옮긴 거죠. 붓다의 번역어로 선택한 부도는 결코 좋은 의미의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를 조금 아는 분은 ‘부도’라는 한자에 깜짝 놀랄 겁니다. 불교를 한자 ‘부도’로 썼다는 사실에 깜짝 놀랄 텐데, 이때 부도의 ‘부’는 ‘뜰 부’자로 흔히 사전에서는 얘기하죠. ‘부유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부평초 할 때의 ‘부’ 이런 거죠. 안정된 게 아니라 떠다니는 겁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리고 ‘도’자는 특히 도살한다. 도살이라는 얘기는 생명을 죽이는 거죠. 우리가 소나 돼지를 도살한다고 얘기하고, 아주 안 좋게는 살인마를 도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마치 동물처럼 죽이는 사람을 도살자라고 하죠. 그래서 ‘도’라는 말은 대단히 안 좋다가 보다는 안 좋은 행위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라는 말을 불교의 음차, 소리 옮김으로 썼다는 자체가 당시에 이 말을 사용한 사람이 그다지 불교에 대해 호의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나는 대로 썼는데, 썩 좋지 않은 한자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부도교라는 말에서 전래 초기의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후한 초왕 영의 불교신앙

세 번째, 후한 초왕 영의 불교신앙입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후한 광무제의 아들이자 명제의 이복동생인 초왕 영이 불교를 신봉했다고 합니다. 명제는 초왕 영의 황로 신앙과 불교 신앙을 칭찬하고 상을 내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명제가 통치를 할 때 아마도 경제적인 이유겠지만, 전국에 사형을 언도 받은 사형수에게 비단을 바치면 사면해 주겠다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사형수들은 정부에 비단을 바쳤겠죠. 그런데 이복동생인 초왕 영이 비단을 바칩니다.

왜냐하면 초왕 영이 사실 자기가 어느 봉지를 다스리고 있지만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건 죽을 죄다. 그래서 황제에게 죄를 사면해 달라고, 죽을죄를 지었으니 죄를 사면해 달라고 하면서 비단을 바칩니다.

명제는 이복동생이 이렇게나 자기의 말에 대해서 충실히 따르고, 그리고 신하로서의 자세를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취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등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초왕 영이 황로를 신앙하고 불교를 신앙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로 신앙과 불교 신앙에 대해서 초왕 영이 황로 신앙을 하고 불교 신앙을 하는 걸 칭찬하게 됩니다. 초왕 영은 이른바 황로, 즉 황제, 노자뿐만 아니라 불타를 신봉한 거죠. 이때 황로라는 말이 낫설기도 한데요.

황로는 이른바 삼황오제 가운데 황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사실 신화적인 인물인데, 이 분이 종교적으로 신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노자를 신격화합니다. 노자는 도덕경의 저자로서 신은 아니죠.

하지만 이후에 황제와 노자를 신격화해서 황로라고 부르면서 종교적인 교주 내지 신으로 받드는 거죠. 이게 황노교라고 합니다. 일종의 신선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한서’에는 초왕이 ‘부도의 인사’를 신봉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의 인사’ 이기 때문에 부도는 당연히 불교를 얘기하는 거고, 인사라는 말은 ‘어질 인’에 ‘사당 사’자를 쓰는 말이에요. 이 시기에는 온전하게 사원이라는 개념이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당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후한 황제의 불교신앙

‘후한서’에 따르면 후한의 환제는 궁중에 황로와 부도를 모시는 사당을 건립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당, ‘사’는 중국에서 신이나 조상 혼령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지금도 무슨 무슨 사, 총렬사라고 한다면 위인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위인, 영웅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제사라는 개념이 없는 불교하고는 사실 무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도사라고 하면서, 절에 ‘사’를 붙였다는 이야기는, 절 대신에 ‘사’라는 말로 붓다를 모셨다는 이야기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귀신 관념하고 불교하고 구분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붓다를 천신이나 조상 혼령, 조령 같은 것으로 이해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후한서’에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무위를 숭상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생을 싫어하며 욕망을 제거하고 사치를 멀리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 가르침은 불교와 황로 신앙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상당히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위를 숭상한다는 이야기는 도교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불교에서도 집착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작위적인 의도를 가진 작위적인 행위를 삼가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살생을 싫어한다. 그리고 욕망을 제거하라는 이야기는 불교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죠.

불살생을 얘기하고, 불살생이 가장 크고 중요한 불교의 계율로 이야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욕망을 제거하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불교를 생각할 때 자기 제어 내지 욕망의 조절 등을 통해서 자기를 정화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치를 멀리한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불교와 기존의 황로 신앙, 아니면 도교 신앙과 함께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초왕 영과 마찬가지로 불교는 황노술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환제의 불교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불교나 도교를 함께 신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교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중국에 가보면 도교를 신앙하면서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불교 신앙과 도교 신앙이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관에서 기도를 하다가 절에 오면 불교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스님들 중에서도, 고대 중국의 스님들 중에서 도사를 꿈꾸다가 불교로 전향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뢰성 있는 불교 전래설인 이존구수설과 그 사실이 등장하는 문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중국인의 불교 신앙 사례를 통해서 황노교 등 중국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크게 구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1-4

불교 전래 경로와 구법승

4차시 강의는 불교 전래의 경로와 구법승입니다.

학습개요는 서역과 문명교차, 그리고 서역 남로와 북로, 그리고 해로와 동남아 경유, 그리고 구법승 법현의 불국기입니다.

학습목표는 불교 중국 전래의 경로였던 서역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거기서 일어난 문명 교차의 의미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클라마칸을 둘러싼 불교 전래의 두 길인 서역 남로와 서역 북로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육로가 아닌 해로로 스리랑카와 동남아를 경유한 불교 전래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구법승인 법현의 구법 과정의 여러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역과 문명교차

불교의 중국 전래는 서역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한서’ 서역전에서는 서역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한나라의 옥문관과 양관에 막히고, 서쪽으로는 총령에서 막힌다’ 라고 합니다.

한나라의 옥문관과 양관은 지금 둔황 근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이라 함은 일종의 국경, 들어오는 국경이죠. 그리고 총령이라 함은 파미르 고원 지역을 총령이라고 고대에는 불렀습니다.

‘한서’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중국 위구르 자치구와 그 주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역은 간단하게는 지금의 지역으로 보자면 타클라마칸 사막 주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역이라는 개념은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고대 실크로드와 겹치기도 합니다. 로마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지역도 서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대 고승 현장이 지은 ‘대당서역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와 인도까지 서역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대당서역기라고 할 때의 서역은 타클라마칸만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인도를 포함한 거죠.

현재의 국가 경계로 보자면 중국 위구르 자치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더 넓게 보자면 길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 지역, 그리고 인도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이듯이 아시아 대륙, 그리고 유럽 대륙까지 크게 걸쳐 있는 길이 실크로드이고, 서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에 걸쳐 있는 곳입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서역 남로와 북로

실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불교가 전파하고 그리고 구법승이 불교를 배우러 갔던 길은 서역 남로와 서역 북로로 일컬어지는 타클라마칸의 길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위시한 지역이 서역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타클라마칸은 위구르어로 ‘들어서면 돌아올 수 없는 땅’ 이라고 합니다.

타클라마칸 북쪽에는 천산산맥이 있고 그 남사면을 따라 서역북로가 펼쳐집니다. 타클라마칸 남쪽에는 곤륜산맥이 있고 그 북사면을 따라 서역남로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천산산맥의 북쪽은 초원이 있습니다. 물론 산맥도 있지만, 대초원이 펼쳐져 있죠.

그 초원길을 따라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연결되는데, 고대의 몽골족이나 흉노족이 유럽 지역으로 침공한다고 할까요, 원정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흉노족이 한나라의 토벌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이 초원길을 사용했습니다.

타클라마칸의 고대 도시는 대부분 천산산맥이나 곤륜산맥이 사막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이게 왜 사막에 도시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한다면, 여름에 천산산맥이나 곤륜산맥의 만년설이 녹습니다. 만년설이 녹아서 엄청난 강을 만들어 냅니다. 그 강이 내려와서 사막과 만나는데, 사막과 만나는 그 지점에서 도시가 형성됩니다.

실제 여름에 타클라마칸 주변 오아시스 도시에 가보면 물이 풍부합니다. 겨울에는 또 눈이 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해로와 동남아 경유

세 번째, 해로와 동남아 경유의 길입니다. 내륙의 길만 이용한 게 아니라 해로를 이용해서 인도와 중국이 교류하기도 하였고, 불교가 전파되고 아니면 불교를 공부하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에 이르는 뱃길은 지금 방글라데시가 있는 벵골만에서 스리랑카로,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인도양을 건너서 말레이해협을 통과해서 남중국, 지금의 베트남, 그리고 홍콩에 있는 광저우 지역에 도달합니다.

거기서 뱃길로 다시 산둥성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내륙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게 일종의 바닷길이자, 흔히 해상 실크로드라고 얘기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불교가 전래되고, 불교를 학습하려고 구법승들이 인도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 동남아로 넘어와서 캄보디아 등지에서 육로로 중국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양나라 때 유명했던 진제스님의 경우는 먼저 캄보디아에 와 있다가 캄보디아에 유명한 스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국 양무제가 그 스님을 초청하게 되죠. 그 분이 진제스님입니다.

동진시대 승려 법현은 서역남로로 인도에 도착하고 오실 때는, 중국으로 귀국할 때는 바닷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육지에 있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다 거쳤다고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당나라 때 활동한 신라승 혜초는 바닷길로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어떻게 오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지만 그 분의 ‘왕오천축국전’은 돈황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돈황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 분이 돈황을 거쳐 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실 때는 바닷길로, 올 때는 육상 실크로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죠.

구법승 법현의 ‘불국기’

네 번째로 구법승 법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현이라는 분은 400년경에 중국에서 인도로 구법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책을 쓰는데, 고승 법현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승 법현전은 일명 ‘불국기’라고도 합니다. 이때 불국은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인도를 다녀왔다는 이야기죠. 인도, 천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구법승이라고 얘기했는데, 구법승은 불법, 이때 ‘법’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구’,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배우려고 인도로 여행을 가는 분. 아니면 인도가 아니라 서역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아니면 한국으로. 여하튼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구법이라고 하고, 그 활동을 했던 분이 구법승입니다.

법현은 인도로 구법을 하러 간 거죠. 불법을 구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법이 부처님 말씀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스님들이라는 뜻으로 구법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법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법승은 불법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전법이라 함은. 이때 불법은 또한 경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중국에 전하는 스님을 전법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고승 법현 스님이 남긴 법현전이라는 글은 서역의 고대 풍습을 알려주는, 역사나 문물을 알려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문학적인 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글이기도 합니다.

법현전의 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에는 악귀와 열풍이 자주 출몰했는데, 그것을 만나면 온전히 살아남는 자 한 명 없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나는 새 한 마리 없고, 고개를 떨구어 땅을 보니 다니는 짐승 하나 없었다. 그곳을 벗어나려 애써 길을 찾아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오직 죽은 사람의 마른 해골로 표지를 삼을 뿐이다. 17일 천오백 리를 걸어서 겨우 선선국에 도착했다.

대단히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사하라는 곳은 법현이 돈황에까지 도착해서 돈황에서 타클라마칸으로 접어드는데, 접어들 때 이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사하는 ‘모래 사’자에 ‘강 하’를 씁니다. 그래서 모래강이죠.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인지, 아니면 그냥 바람이 불면 모래가 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강물처럼 모래가 흘러 다니죠. 이걸 묘사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 특정 지역에서 이런 걸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래강에는 당연히 사막에 들어가면 악귀와 열풍. 악귀라 함은 실제로 악귀가 있다는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얘기 같지는 않아요.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온 갖가지 괴로움이 있죠. 그리고 더위도 있습니다. 같이 여행을 하면서 왜 여기에 왔을까.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는 물을 많이 먹고 나는 참고 있는데, 온 갖가지 생각이 들죠. 이런 온갖가지 고민들이 악귀이고 열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면, 사실 가다 보면 힘들어서 쓰러지고 쓰러져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늘을 보니까 새도 없고, 그리고 뛰어다니는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벌레 한 마리 없는 거죠.

도저히 이 모래강을, 이 사막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알 수 없이 헤매던 순간에 저 앞에 사람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뼈를 보고 ‘이전에 사람들이 이 길로 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조금 더 가보니까 저쪽에 사람 뼈가 있고. 그래서 죽은 자가 해골로 법현에게 인도로 가는 길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말을 해 주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법현은 인도에 도착합니다. 법현이 여행한 경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시아 대륙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전래의 길은 고대 문명의 교류의 경로였고, 바로 이 길 위에서 새로운 문명이 잉태됐으며, 그 역할을 전법승과 구법승이 담당했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1-5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

이번 시간은 불교의 동아시아 전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습개요는 불교의 고구려 전래, 그리고 불교의 백제 전래, 불교의 신라 전래, 불교의 일본 전래, 불교의 티베트 전래입니다.

학습목표는 불교의 고구려 전래와 중국불교의 관련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백제 전래와 중국불교의 관련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신라 전래와 주변국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일본 전래와 주변국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티베트 전래와 중국불교의 관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고구려 전래

먼저 불교의 고구려 전래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따르면 서기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중국의 전진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고구려에 보내서 불상과 불경을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불교 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진 왕 부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진은 당시 북중국의 강력한 나라였고요. 그 나라를 이끈 이가 부견이었습니다. 전진 왕 부견은 중국 불교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불교에 대단히 심취했고, 특히 유명한 고승을 전진으로, 자기의 나라, 자기의 수도로 초대하고자 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쟁도 불사하면서 이웃 나라의 유명한 고승을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 데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승을 모셨다기보다는 일종의 전리품처럼 고승을 데려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분의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전파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해 보입니다. 고구려에 불교가 정식으로 소개된 이후, 2년 뒤인 374년에는 승려 아도가 남중국의 국가인 진에서 고구려에 도래합니다.

남중국의 동진입니다. 북중국에 전진이 있을 때 남중국에 동진이 있죠. 그리고 소수림왕은 성문사와 이불란사라는 절을 건립해서 순도와 아도를 각각 머물게 합니다.

소수림왕의 불교 수용은 고구려가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림왕 이전에 이미 민간 차원에서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중국 자료인 고승전에는 강남의 승려 지둔이 고구려 출신 승려와 교류한 사실이 전해집니다.

이걸 보면 불교가 공식적으로 고구려에 전래되기 이전에 이미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불교가 전해졌고 승려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불교의 백제 전래

다음은 불교의 백제 전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84년, 백제 침류왕 원년 동진에서 호승 마라난타가 법성포로 도착하자 왕실에서 예배하고 공경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진은 남중국의 국가죠. 그리고 호승이라는 말은, 호승은 ‘오랑캐 호’ 자이지만 중국에서는 주로 호승이라고 하면 인도, 서역승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승이라고 하면 중국인 스님이 아니라 인도 출신의 스님, 승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 출신, 아니면 서역 출신의 마라난타가 법성포, 지금 전남 영광 주변입니다. 영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5년 사찰을 건립하고 백제인 열 명을 출가시켜 공식적으로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백제인을 출가시켰다는 이야기는 백제인 출가자, 그러니까 백제인 정식 출가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백제인으로 이루어진 불교 교단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후로 백제인 간에 계를 주어서 승려가 되는 일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백제인 불교 교단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백제는 주로 남중국, 동진으로 대표되는 남중국과 교류하면서 남중국의 불교문화를 받아들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신라 전래

다음은 불교의 신라 전래입니다.

신라 불교 전래의 몇몇 전래설화가 있습니다. 고구려 출신 승려 아도나 묵호자 등이 신라에 불교를 전했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그래서 백제나 고구려 같이 당시 북중국 혹은 남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신라는 가까운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백제에서 불교를 전했다는 기록은 거의 없고, 고구려에서 불교를 전했다는 기록이 주입니다.

이걸 보면 고구려 내지 고구려의 불교계가 신라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노력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라의 불교 전래는 고구려 승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현재 경북 경산 지역에 해당하는 당시 일선군을 중심으로 불교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래 설화에서 나오는 지역이 대부분 일선군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이 지역에 특별한 이유, 의미가 있었겠죠. 물론 접경 지역이기도 하고요. 신라에 공식적으로 불교가 수용된 것은 528년 법흥왕 15년으로, 이때 신라 최초 가람 흥륜사가 건립됩니다. 앞서는 불교 전래의 전설이죠. 전설이고 이야기들인데, 공식적으로 수용된 게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흥륜사가 신라 불교 최초의 가람이라고 이야기되는데, 흥륜사의 자리는 원래 무속, 무교의 성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무교의 성지였죠. 무교, 그러니까 불교 이전의 신라 종교의 주된 성지였던 이곳에 흥륜사라는 사원이 건립됩니다.

이건 기존 종교를 불교가 굴복시킨 듯한 인상을 보이기도 하죠. 아마도 당시에 큰 문제가 있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교 쪽에서는 불교계가, 아니면 국가가 자신의 성소에 사찰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무교 성지, 뭐라고 할까요? 없애버린 격이기 때문에 큰 반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발, 아니면 그 당시 기존 종교가 불교에 대한 적대적인 경향,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차돈의 순교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차돈의 순교가 이야기로는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 정도로 이야기되는데, 사실 계기라기보다는 그 과정이 일어났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존 종교인 무교를 신봉한 구세력이 신라 왕실의 불교 수용을 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차돈의 순교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실은 불교를 수용하여 이후 크게 불교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불교의 일본 전래

불교의 일본 전래입니다. 공식적인 불교의 일본 전래는 53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6세기와 이후 7세기에 걸쳐서 활동한 성덕태자,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성덕태자, 쇼토쿠 태자는 단지 1명의 정치인, 태자 정도가 아니라 신으로 모셔지죠.

어느 시기에 강렬한 신격화가 이루어져서 신으로 모십니다. 일종의 쇼토쿠 태자 신앙이 발생한 거죠. 쇼토쿠 태자는 중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하였고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일본불교는 백제나 신라의 불교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 한반도로 불교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많은 일본의 승려가 신라나 백제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기록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서 이미 사라진 고대 한국의 불교문헌이 이런 이유로 종종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신라로 유학했던 스님들이 당시에 신라에 유통되었던 문헌을 가지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필사해서 계속 남깁니다.

그런데 실제 그 문헌은 신라에서 일찌감치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나서 일본에서 그런 문헌이 발견되는 겁니다.

불교의 티베트 전래

불교의 티베트 전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티베트에서 티베트고원을 통일하고 토번왕조를 건설한 송첸캄포, 6세기와 7세기에 걸쳐서 사신 분입니다. 송첸캄포 왕이 재위 시절에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송데첸 왕의 재위 시절인 794년, 8세기 말이죠.

삼예사의 논쟁이 발생합니다. 티베트에 불교가 전래된 게 정확하게 인도불교냐, 중국불교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세기, 7세기면 꽤 늦습니다, 불교가 티베트에 전해진 시기가. 한반도에 불교가 전해진 시기보다 어쩌면 더 늦습니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교 전래가 늦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당나라 쯤. 불교가 중국에서 대단히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었췄. 그런데 티베트에서 당나라불교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중국불교를 받아들일지 인도불교를 받아들일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하나의 논쟁으로 발생한 게 삼예사의 논쟁입니다. 그 당시 티베트 정부에서는 어느 쪽 불교를 받아들일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인도불교를 대표하는 분, 그리고 중국불교를 대표하는 분을 모셔다가 같이 이야기를 시켜보자,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하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승려인 마하연과 인도 승려인 카말라설라, 두 분을 모셔서 불교 대론을 시키는 거췄.

결국 인도불교를 대표하는 카말라설라가 논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티베트는 인도불교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췄. 인도불교 위주로 받아들이고, 이후 티베트불교는 인도불교가 중심인 불교가 되는 겁니다.

티베트불교가 인도불교 위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중국불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도 합니다. 티베트불교가 인도불교와 관련된다고 해서 중국불교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예로는 한국불교와 관련이 있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신라 출신이면서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원측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현장, 삼장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분이췄. 이 분이 한문으로, 당시 당나라에서 한문으로 해심밀경소라는 작품을 씁니다. 해심밀경소는 해심밀경이라는 불교 경전을 풀이한 거췄. 해설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해심밀경소를 쓰는데, 한문으로는 해심밀경소가 일부 사라졌어요. 그런데 티베트어로 그것이 번역되어서 온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불교는 중국불교의 중요한 내용을 가져다가 번역해서 연구하기도 했다는 거췄. 그래서 중국불교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교의 중국 전래는 주변 동아시아 국가에 불교가 전파되는 계기였고, 불교를 통해서 동아시아는 문명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Ⅲ. 퀴즈

1. OX퀴즈

문제: 불교는 중국에 춘추전국시대 전래됐다.

정답: X

설명: 불교는 중국에 후한시대 전래된다.

2. OX퀴즈

문제: 이존구수설은 불교 경전이 전래된 이야기다.

정답: O

설명: 이존구수설은 대월지 사신이 구술로 불교의 존재를 알린 것이다.

3. OX퀴즈

문제: 불교는 실크로드를 경유해서 중국에 전래된다.

정답: O

설명: 불교는 실크로드에 해당하는 중앙아시아와 타클라마칸 서역남로와 북로를 통해서 중국에 전래된다.

중국불교와 한국불교의 관계

Chinese Buddhism and Its Relationship

4. OX퀴즈

문제: 육로가 아니라 해로로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기도 한다.

정답: O

설명: 불교는 인도에서 스리랑카, 말레이반도, 동남아를 경유해서 중국에 전래되기도 했다.

5. OX퀴즈

문제: 신라는 불교를 중국을 통해서 최초로 받아들인다.

정답: X

설명: 신라는 최초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에 접촉했다.

IV. 참고문헌

- Erik Zürcher, 최연식 옮김, 『불교의 중국정복』 (서울: 씨아이알, 2011), pp.65-66.
- 鎌田茂雄, 장휘옥 옮김, 『중국불교사-초전기의 불교』1, (서울: 장승, 1992).
- 계환, 『중국불교』 (서울: 민족사, 2014).
- 末木文美士, 이시준 옮김, 『일본불교사』 (서울: 뿌리와이파리, 2005).